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4월 12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 당 자	• 보건정책팀장 조상열 ☎440-2711 • 담당자 홍윤숙 ☎440-271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월도 주치병원 가천대길병원, 승봉도서 무료진료 개시
- 8명 의료진 방문해 60여명 주민 진료, 추가진료 필요시 협력 의료기관 연계도 -

자월도 주민들의 주치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이 승봉도 무료진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천대길병원이 12일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에서 첫 무료 진료를 시작하면서 ‘1섬 1주치 병원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천대길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섬 프로젝트’ 일환 민·관 협약으로 무료진료사업을 시작해, 근해도서인 북도면, 자월면, 덕적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료를 중단 했다가 올해 인천시의 1섬 1주치병원 추진계획 활성화에 동참하면서, 자월도의 주치병원이 됐다.

이번 검진에는 의사(전문의) 2명, 간호사 2명, 행정인력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의료진이 방문할 예정이고, 전문의 검진 후 추가진료 또는 수

술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용진군의 추천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에서 무료 수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가천대길병원 의료진은 사전 예약한 승봉도 주민 총 60명을 대상으로 고령층에 필요한 통증치료, 내과진료 상담, 침술, 부항, 한의진료 등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천대길병원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에 감사드린다” 며, “민·관 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 사업이 행사성 순회진료가 아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7개 면(面) 단위 도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섬 1주치(主治)병원인 ‘애인(愛仁)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내 종합병원들이 한 개의 섬, 총 7개 섬을 맡아 주기적으로 섬을 찾아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사진> 진료사진

